



경고의 뉴스레터 “나팔”

발행일 : 2014년3월 발행 (제 47호)

발행 : 경고의나팔 출판

가격 : 무료배부

나팔 HP: <http://www.geocities.co.jp/Technopolis-Mars/5614/>

목차:

◎권두 메시지 '귀신에 석권당하는 시대' 예레미야

◎간증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란' E3

◎알림 코너 '신간 서적 소개'

<권두 메시지>

'귀신에 석권당하는 시대' 예레미야

오늘은 귀신에 석권당하는 시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종말의 날의 교회는 귀신에 영향받는다>

성경은 종말의 날 의 교회가 귀신에 현혹되지 영향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4:1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이 구절에서 말하는 후일이란 즉 종말의 시대가 되면 교회가 귀신에 미혹되어, 귀신이 작용하는 것, 그리고 그 귀신에 유혹당하는 기독교인들이 나오는 것이 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종말의 날에 귀신의 교리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 교리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영으로도 문제가 있고 성령이 작동해야 교회에 귀신의 역사가 일어 오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봅시다.

<예수님을 몰아내고 귀신이 석권하는 시대>

한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하게 귀신에게 현혹되어 버리는, 있어서도 안되지만, 그러나 일찍이 예수님의 시대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세요.

마태 복음 12:43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12:44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제되고 수리 되었거늘

12:45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기서 주님은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라 말하며 즉 주님이 계신 시대가 일곱 귀신이 석권하게 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에 석권당하는 시대' 예레미야

이 시대 전체가 귀신에 유혹당하는 일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 물 없는 땅을 방황하며 쉼 곳을 찾고 있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귀신이 쫓겨나 사는 곳이 없는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대는 많은 귀신이 쫓겨 난 시대이며 다음과 같이 많은 귀신이 예수님에 의해 쫓겨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8:16 저물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 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 시대 귀신은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한때이며, 또한 이 시대에 귀신이 되돌아오는 날이 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12:44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제되고 수리 되었거늘

12:45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또한 귀신이 되돌아 온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나간 귀신이 또다시 이 집, 이 시대에 정착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집은 비어 있고"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즉 그 집은 본래 존재해야 할 주인이 없는, 있어야 할 것이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주인이 없고, 부재이므로, 다행히도 귀신이 뻘뻘스럽게 정착하게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없다, 왕이 없다, 이 일은 역사적 사실이며,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낸 왕이신 예수님을 귀신취급하며 바알세불의 영의 사람이라며 쫓아냈습니다. 결국 이단 컬트로 체포하고 십자가에서 처형하며 그를 이 시대에서 치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이신 이 집 주인은 쫓겨나 결핍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과, 이 악한 시대는 귀신에 의해 석권되고 유혹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라고 한, 한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미혹되어 주님에게 알려지는 것에 마음을 멈추어주시오. 한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통째로 귀신의 유혹에 들어가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것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읽을 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복음서 기록은 귀신에 현혹되어 석권 당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임금을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22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7:23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이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27:24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민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귀신적인 성령의 제 3의 물결 옹호자, 피터 와그너

‘귀신에 석권당하는 시대’ 예레미야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있어야 할 유대인들이 현혹되어 열성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죽이려고 노력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유혹은 다름 아닌 귀신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에 미혹된 군중과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누구도 자신들이 귀신에 미혹되어 있다고는 차마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그들은 그들의 성경도 그 신도 믿고, 또한 그 가르침을 행하고 있는 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의 임금을 쫓아 7인의 귀신에 미혹된 것입니다. 유사한 속임수가 종말의 날에 재현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야말로 정통이다 와 같은 자부심으로 가득 찬 기독교인이 귀신에 미혹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 설명은 이 시대가 하나님의 영을 받들지 않고, 결과적으로 미혹에 빠지는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34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13:35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조류는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라고 써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감싸듯,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모으려 한 것인가" 라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자 하고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시대는 악한 시대이고 하느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고 쫓아 결과적으로 귀신에 이끌려 미혹되고 자멸하게 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귀신에 이끌려, 그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이 내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 십자가에서 죽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결국 지배자인 로마에 반항하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반항의 결과 예루살렘은 서기 70 년 로마 군에 포위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백성은 마지막 한 명까지 학살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귀신에 미혹된 시대의 결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에 대한 교훈입니다.

<종말의 날에도 귀신의 유혹은 재현된다>

그런데 주님의 첫 강림의 날에 일어난 것은 재림의 날에 일어날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재현 될 수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이 성령을 쫓아 그 결과로 교회가 귀신이 석권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승인하도록 다음 말씀은 그날 교회에서 성령이 쫓겨나 그 결과, 적그리스도의 영이 교회를 석권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6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2:7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막는 것이란, 즉 성령입니다. 그리고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라고 쓰여져 있는 것처럼 그

'귀신에 석권당하는 시대' 예레미야

성령이 중 제거되는, 즉 교회에서 쫓겨나는 날이 올 것을 이곳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즉 적그리스도의 영이 교회를 석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날 교회에서 성령이 쫓겨나 그 결과 귀신이 교회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이 명확하게 예언하는 미래임을 알아둡시다.

그 밖에도 이것 성령께서 마지막 날에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의 일곱 교회의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는 더이상 주님이 가정과 교회 안에 없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본래는 가정 교회에 있어 그 중심에 계시는 것일 뿐 예수님께서 이 7 번째 교회에서는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보았던 아무도 살지 않는 텅 빈 집으로 통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주님을 쫓아 낸 교회 중 7 개의 귀신에 지배 되기 것도 암시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 됩니다.

마치 교도관이 총을 쏘아 죽인 후 죄수가 감옥을 탈출 하듯이 그날 성령이 쫓겨나 귀신 적그리스도의 영이 교회를 석권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령이 쫓겨나 귀신이 석권 하게된다? 그런 것은 들어 본 적도 없다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는 귀가 있다면, 이 것은 사실 성경에서 종종 얘기되는 일입니다.

<귀신의 표적의 시대>

교회에 귀신이 움직일 때, 구체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행해지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은 표적과 신기의 부흥으로 된다고 말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4: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데살로니가후서 2:9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2:10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2:11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여기에서는 종말의 날에 사탄의 작용에 의해 "모든 속임"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 "모든 속임이 교회에 일어나는 시대"라는 관점에서 지금의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 실은 현대는 이러한 이적과 기사가 교회에서 선전되는 시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터 와그너와 베니가 주장하는 소위 성령의 제 3의 물결이 그 표적과 신기의 부흥입니다.

오순절계 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교회가 이러한 표적과 신기를 무조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훌륭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요? 이러한 움직임은 귀신의 일이라 지적하는 사람들이 서양에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종말에 있어서, 교회가 모든 면에서 비정상인 되는 것, 그 결과 교리도 이상해져 귀신의 교리로 바뀌는 것, 또한 그 영도 이상해져 성령이 되지 않고 귀신이 석권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강한 것을 묶는다>

교회에 귀신이 들어오는 이 것을 좀 더 생각합시다. 도대체 어떻게 교회에 귀신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 문제와 관련하여 일찍이 주님은 먼저 강한 것을 다는 것을 말했다.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2: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12:29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여기서 주님은 강한 사람으로 지켜지고 있는 집, 곧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하여 공격받는가를 말했다. 그 방법은 먼저 그 강한 사람을 묶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말씀이며, 나중에 성취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 이 말대로 당시 하나님의 백성을 석권하려고 사탄은 먼저 강한 사람, 그리스도를 묶은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과 같습니다.

27:1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27:2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라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미혹된 백성의 장로들은 귀신이 재촉하는 대로 하나님의 집의 강한 사람, 그리스도를 달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집, 하나님의 백성은 사탄에 의해 유린되어 엄청난 유혹에 들어갔습니다. 집은 강탈되고 가재도구는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이 종말의 날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집이 강한 사람, 즉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귀신 취급을 하고 쫓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탄의 미혹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를 예언하도록 위의 마태복음의 구절에서 다음과 같이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12:31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12:32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강한 남자가 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성령 모독이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관련 있는 것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를 바알세불 취급하고 쫓아 낸 것이 그날 재현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날에 현혹된 하느님의 백성은 성령을 바알세불 취급하고 교회에서 쫓겨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조짐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순절계 교회는 자꾸 귀신을 묶는, 그리고 기능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실은 사탄의 용의주도한 준비 아래 시작된 운동입니다. 이 "달기"는 모두 미혹 속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전하는 일에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집, 교회의 강한 자가 전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미혹된 그들은 이미 베니와 같이 귀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낼 날도 멀지 않습니다. 종말의 주님의 뜻을 실시합시다.

- 이상 -

귀신의 부흥에 쓰러지는 사람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란' E3

이전부터 조금 생각해보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만, 바로 다음의 성경 구절입니다.

참조 마태복음 19:23,24

19:23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19:24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주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그대로 읽는다면 세상에서 많은 재산과 돈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많고, 돈으로 해결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외로 부정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돈으로 대부분의 것을 끝마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를 거의 느끼지 않고 하늘 나라는커녕 믿음조차 가지기 어려운 지도 모릅니다. 물론 생활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푼도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 이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부자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모두 그리스도인 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그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 드렸듯이, 돈은 생활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나쁜 것인가라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거나, 빌딩을 몇 채 소유하고 있는지 가 아니라 돈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요점은 돈과 재산에 집착하는 것은 뜻이 없다. 앞에서 말씀했듯이 하나님보다 돈이나 재산을 우선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그러한 것에 지배되거나 하지 않고, 또는 그들을 바쳐 주님을 섬기고 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은 "부자"에 관한 걸 표면의 의미인데, 나 자신은 단순히 그냥 없는 것은 아닌가 하고 해서 이 부분을 통독할 때마다 주로 "다른 말씀하셨습니까 아닐까요?"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예배 메시지에서 배운 시편 41 편 말씀을 비롯해 몇 가지 말씀을 통해 "부자"에 관한 오랜 의문이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41 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참조 시편 41:1

41:1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다음은 예레미야 목사가 메시지했던 것입니다만...

밑줄 "빈약한 자"는 KJV 뜻으로는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가난"이라는 말에서 연상하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거지같고 물건을 갖고 싶어하는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영의 세계에서도 같은 영적에서 가난하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거지 같이 열심히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과 관련하여 영적 갈증이 있고 적극적으로 거지같이 찾아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행스러운 일로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이 예배 설교에서 말해지고 있었습지만, "그렇구나"라고 고개를 끄덕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기도 후 갑자기 번쩍 것이 있었습니다. "가난의 반대말은 분명히 부자가 아닐까?!"라고. 아까 이야기에서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해 나가는 것이었지만, 반대로 영적인 부자 이른바 풍요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 없는 사람, 더 말한다면 하나님께 의지 않고 자신의 힘에 의지하는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편히 기독교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자"라는 것을 그 때 알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란' E3

딱히 금전이 풍부하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이런 상태의 사람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풍부한 사람", "부자"인 것이지 않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 때 나타난 말씀을 봅시다.

참조 요한계시록 3:17

3:17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풍요하다", "부족하다"라는 말은 바로 앞의 "부자",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과 부호하는 것이 아닐까요? "나는 풍요하다...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참담하고 불쌍하다... 벌거벗은 자임을 모르는구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내 상상입니다만,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게다가 자신에게 힘과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주님의 도움과 힘을 요구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참담하다..."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죄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참조 디모데전서 5:3~6

5:3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5:4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5:5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5:6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위 부분에서 "과부"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번 테마와 "과부"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싶을지도 모릅니다.

"과부"는 세상에서 짝을 잃은 사람을 말하는데, 성경에 관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남녀 묻지 않고, 혹은 결혼을 하고 하지 않고에 상관없이 진정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소망을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 것을, "과부"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고아"라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인간 아버지가 있어도, 그러나 정말 의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에게 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따르면 "과부"라고 표현 된 기독교인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과부"라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방종한 생활을 하는 과부"입니다. 그 구분은 5 절을 보면 분명하지만 진정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입니다. "소원과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과부"라고,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방종한 생활을 하고 있는 과부"라는 평가를 하나님이 되어 버려, 급기야는 6 절에 있듯이 "살아 있어도 죽은 자"라는 식으로 간주되어 버립니다. "살아 있어도 죽은 사람"은 육체의 생명은 살아 있어도 영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고갈되면,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안쪽에 머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은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과부"의 행보,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끊임없이 소원과 기도를 간다면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간주, 이 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입니다.

이번, "마음이 가난한", "부족한", "참 과부"라는 말씀을 통해 "부자"의 위험성에 대해 나름대로 영혼의 깊은 곳에서 다소나마 이해한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겉의 의미만을 본다면 세상의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사람만의 것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 하지만, 실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매우 관계가 있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나타날 때까지 조금 더 생각 했습니다만, 실제로 신이 말하고 있는 것은 매우 간단한 것...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 나가는가? 혹은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자신의 힘과 생각과 아이디어를 우선하여 실시하는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자"의 행보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 나라를 계승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마음이 가난한 행보에 철저히 간다면 하늘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런 행보에 철저히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므로, 그 부분을 읽고 간증을 끝내고 싶습니다.

참조 마태 복음 5:3

5: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번에도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게 영광과 영예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 이상 -